

사회경제사적 地方史의 가능성

향토지 편찬의 새 수준 보인 「密陽誌」

두툼한 부피, 고급양장에 금박의 題籤, 장황할 정도로 많은 발간사, 축사, 격려사들, 그리고 흔히 '살기 좋은 내 고장'식의 소박한 향토에.

官撰, 野編을 막론하고, 향토지 하면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연상들이다. 전국 각지의 200여 市郡 가운데 향토지 한권씩 갖고 있지 않은 곳이 드물지만, 그들 향토지의 대부분이 위와 같은 연상들에 내포된 특성과 한계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향토지는 그 기획과 집필, 그리고 편집과 제작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자기중심적인 애향심에 크게 지배받는다. 따라서, 객관적 입장에서 엄격한 과학적 관찰과 체계적 서술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주로 제 고장의 자연과 풍속을 미화하고 문화와 인물을 자랑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밀양문화원에서 펴낸 「密陽誌」는 종래의 향토지 편찬의 관례를 벗어난, 현수준에서의 우리 향토지 편찬의 가장 모범적인 실례를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끈다.

전문학자 10명이 3년동안 집필

「密陽誌」는 우선 전문필자와 전문편집자에 의해 만들어진 특징을 갖고 있다.

성균관대 李佑成교수를 집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 각 분야별로 밀양 출신의 전문학자나 현지의 농작전문대 교수 등이 원고집필에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자연, 역사, 경제, 종교, 교육, 문화, 민속, 인물, 문화재, 동족집단 등에 걸쳐 尹文泰, 朴年圭, 李佑成, 全基浩, 李麗衡, 李學澈, 金時郡, 曹永祿, 金泰永, 林榮澤교수 등 해당분야의 전문학자들이 원고를 분담집필했다. 이같은 원고집필의 전문성이 내용의 충실성과 객관성에 자연스럽게 연계됨은 물론이다.

'사회경제사적 지방사' 혹은 '문화사적 지방사'를 염두에 두고 「密陽誌」 집필에 임했다는 이우성교수의 말에 따르면 "순수하게 학문적인 견지에서 밀양을 대상으로 삼아, 자연환경을 필두로 역사, 사회, 경제, 문화의 제관계를 객관적으로 살피고 설명하려 했다"고 한다.

이교수를 비롯한 집필진의 이러한 의도가 과연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는 성급하게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종래의 향토지가 애향심과 아마추어리즘에 기인한 내용의 주관성과 소략함, 때로는 번잡함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데 비추어 「密陽誌」는 확실한

전문학자의 원고집필과 전문편집인의

편집으로 만들어진 「密陽誌」는

소박한 애향심에 기반을 두고

편찬됐던 종래의 향토지에 비해

엄정한 객관성에 기초한 과학적인

지방사 연구의 디딤돌이 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진일보의 면모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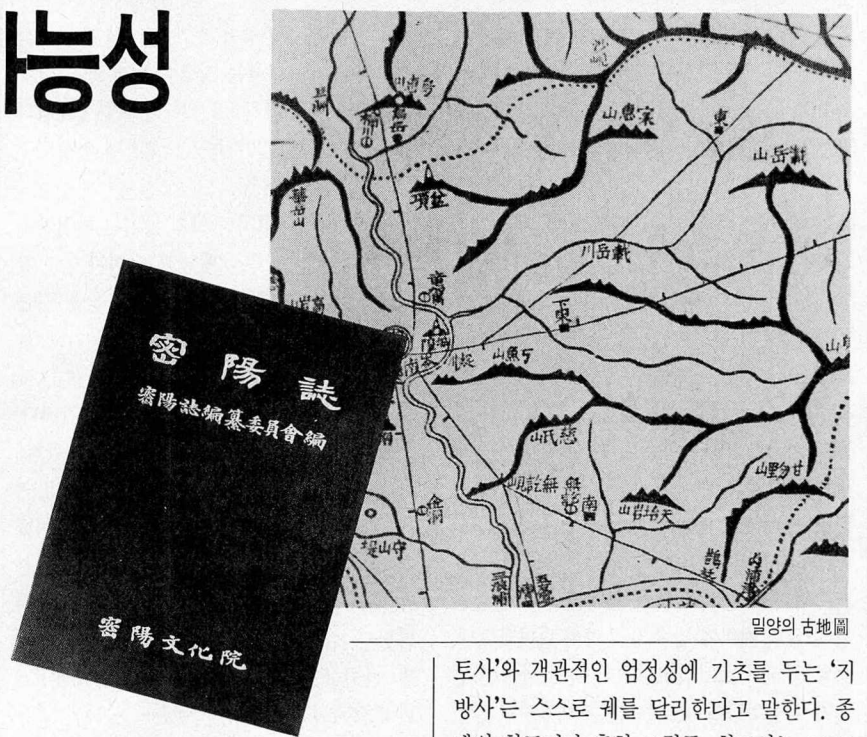
우선, 전후 4년의 제작기간 중 집필에만 3년이 걸려 집필자들이 원고내용의 객관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울인 정성과 노력을 짐작할 만하다. 이 3년동안 집필자들은 조선 숙종연간에 처음 나온 「密州誌」를 비롯 郡誌, 鄉案 등의 각종 史乘과 관변의 통계자료를 섭렵하고, 수차례의 현지조사까지 거쳐 원고를 작성해서, 이를 다시 따로이 구성된 편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최종적으로 수록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밀양지편찬위원회 위원장인 曹喜鵬 밀양문화원장은 이 「密陽誌」가 '밀양의 과거를 익히고 조명하는 가운데 소중한 향토의 미래를 계발하기 위해 간행된 가장 현대적인 내용과 체제의 군지' 라고 자부하고 있다.

내용상으로는 金時郡교수가 집필한 '민요·설화·방언'편과 林榮澤교수가 집필한 '문헌'편이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민요·설화·방언'편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 채록된 자료들과 함께 「密陽誌」 수록을 위해 210여명의 제보자로부터 각각 324편과 405편씩의 민요 및 설화 등의 구비전승자료를 새로이 채록한 점이 돋보인다.

또한, '문헌'편은 卞季良과 金宗直의 고향으로 '嶺南左道の 雄府'라 일컬어지던 밀양지방에 현전하는 각종 서책과 藏板의 현황을 소상히 밝히고 있어 그 의의가 높이 평가된다. 향교와 서당, 사찰, 그리고 世家名門에 남아 있는 문헌목록의 총정리라는 점에서 이 '문헌'편은 지방 소재 문헌조사의 훌륭한 선례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방대한 색인작업 돋보여

편집에 있어서도 책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배려들이 이전의 향토지들과는 구분된다. 한마디로 군더더기가 없이 잘 정제돼 있어 읽기가 편하도록 만들어졌다. 20여년간



밀양의 古地圖

전문편집인으로 일해 온 創作社 丁海廉교문이 편집책임 맡았는데, 앞으로 간행될 향토지들이 모범으로 삼을 수 있도록 체제의 정비에 특히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향토지는 지방사, 지역사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전체적이고 보편적 차원의 역사연구에 기초자료 구실을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원고의 충실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편집 체계도 아울러 뒤따라야 합니다. 종래의 향토지가 이런 측면은 비교적 허술하게 다룬 것이 사실이지요."

이를 위해 「密陽誌」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 방대한 색인의 작업이다. 6개월 동안의 편집 및 교정작업 가운데 한달을 오롯이 이 색인작업에 매달려 모두 1만여장의 카드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총6500 항목에 이르는 색인을 45페이지에 걸쳐 수록함으로써, 이 책이 단순히 '모셔두는' 책에 그치지 않고 알고 싶은 사항을 쉽게 찾아 읽을 수 있는 '살아있는' 향토지로 기능토록 했다.

金泰永교수가 집필한 '인물'편에서는 해당 인물의 略傳이 연대순으로 기술돼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총색인과는 별도의 인물색인을 가나다순으로 작성, 수록하기도 했다.

풍부한 도표를 다양하게 수록해, 절약된 지면 속에서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이 책의 장점으로 들 수 있다. 정해령씨의 설명에 따르면, 원고에는 문장으로 기술됐다고 할지라도, 도표로 정리하는 것이 지면도 절약되고 내용의 파악에도 유리하다 싶으면 일일이 다시 도표를 작성했다고 한다. '姓氏의 面別 분포상황' '밀양군내 祠堂의 실태' 등이 대표적으로, 모두 170여개의 도표가 수록돼 있다.

'향토사'에서 '지방사'로

이우성교수는 애향적 감정에서 출발한 '향

토사'와 객관적인 엄정성에 기초를 두는 '지방사'는 스스로 궤를 달리한다고 말한다. 종래의 향토지가 흔히 그렇듯, 향토사는 그 고장 주민의 정신적 긍지가 되고 생활환경과 전통에 대한 신뢰를 복돋아 주기도 하지만, 주관적 견해에 의한 자가도취에 빠져들 위험이 다분히 있다. 반면, 지방사는 학문으로서의 역사의 하위장르라 할 수 있다. 즉, 한 나라의 역사를 연구하려면 먼저 연구의 지역화가 필요하고, 연구의 지역화를 위해서는 그 지역의 행정적 연혁과 교통, 경제, 인물, 문화 등의 다양한 실정들을 알아야 하는데, 지방사는 그러한 요구들을 제대로 수렴하는 '연구'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볼 때, 「密陽誌」는 향토지가 향토사에서 지방사로 이행되는 발전적 계기를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직 완벽한 지방사로서의 수준에는 올라 있지 못할지라도 종래의 향토지들에 내재된 여러 편견과 약점들을 극복했다는 긍정적 의의를 가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행정당국의 예산지원과 무관한 민간차원의 사업으로 「密陽誌」 발간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향토지 발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密陽誌」 발간을 위한 이사회가 구성돼 그 결의에 따라 각자 지원금을 출연하고, 집필과 편집은 온전히 전문가의 손에만 맡긴 점 등이 이만한 수준의 향토지 편찬을 가능케 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密陽誌」는 원고의 집필과 편집뿐 아니라 발간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실제적 운용 등에서도 두루 바람직한 모범을 보인 향토지라 할 만하다. 앞으로, 이같은 향토지의 발간이 꾸준히 이어져 각각의 지역이 국가 전체의 차원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밝혀줄 수 있는 지방사 연구가 축적되기를 기대해 본다. 나아가, 누구에게나 쉽게, 널리 읽힐 수 있는 보급판 향토지도 발간되었으면 하는 것이 일반독자들의 바람이다. —강철주 기자